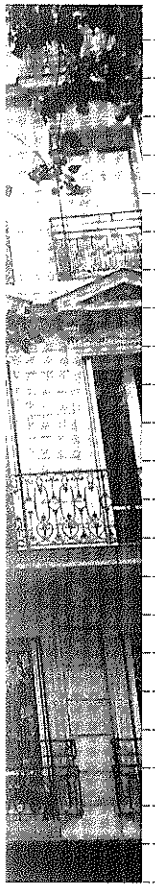

여리고성 재건에 나타난 저주 (왕상 16:34)

Curse on the rebuilding of Jericho (1 Kings 16:34)

신득일[1]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서언 294
2. 정경과 본문 294
   2.1. 정경의 상태 294
   2.2. 본문 번역 296
   2.3. 본문의 상태 296
   2.4. 본문의 위치와 문맥 297
3. 주석적 설명 300
   3.1. 여리고의 중요성 300
   3.2. 아합의 정책 301
   3.3. 여리고에 임한 저주 303
   3.4. 아합의 의도에 나타난 영적 교훈 304
   3.5. 여리고성 재건에 대한 금지 이유 307
4. 결어 308

요약

여리고성 재건에 나타난 저주 (왕상 16:34)

본고는 여리고 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저주를 표현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이다. 아합의 죄목과 엘리야의 출현사이에 배치된 본문의 내용은 그의 정책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여리고 재건에 대한 아합의 정책은 그 도시를 요새화하여 모압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가 여리고를 요새화하려는 것은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운 사역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저주의 내용은 히엘의 장자와 계자를 제물로 희생시킨 것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아합, 여리고 재건, 히엘, 저주, 약속과 성취

Curse on the rebuilding of Jericho

Curse on the rebuilding of Jericho (1 Kings 16:34)

Prof. Dr. Deuk Il Shin

This article is an exegetical study of 1 Kings 16:34 which mentions God's curse on the rebuilding of Jericho. The content of the text, which is arranged between the wickedness of Ahab and the appearance of Elijah, appears to require God's intervention in Ahab's policy.

Ahab's policy related to the rebuilding of Jericho was a plan to provide safety from Moab's invasion by fortifying the city. However, he ignored the prophetic word of Yahweh on the city which was spoken by Joshua. His intention to fortify the city was to show his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by erasing God's gracious work which was seen in Jericho's destruction. That is why the curse was on the city: Hiel sacrificed his sons as a foundational sacrifice. This event demonstrates that God's promise is surely fulfilled and that he is primarily interested in his gospel.

Keywords:

Ahab, the rebuilding of Jericho, Hiel, curse, promise and fulfillment

1. 서언[2]

본문은 여리고성 함락이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재건과 관련해서 저주를 발한 예언에 대한 성취를 보여준다(수 6:26).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루어진 의미가 있지만 이 본문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이 내용에 대한 본문 문제와 역사적, 제의적 문제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 문제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계시역사적 주석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2. 정경과 본문

2.1. 정경의 상태

역사문헌비평 관점에서 벨하우젠은 사무엘과 열왕기 전체를 바벨론 포로기에 편집되었다고 보고 열왕기는 사사기, 사무엘서와 함께 '신명기적' 개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3] 그는 이 책에 나타난 왕국에 대한 이상은 신명기의 이상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노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서의 편집을 설명하는데, 그는 신명기 기자 한 사람이 신명기에서 열왕기에 이르는 수집물의 편집에 대한 책임을 맡았고, 열왕기 기자는 팔레스타인 남북 지역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공식 연대기를 자료로 삼아 주전 550년경 그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한다.[4] 그는 이 본문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이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이 이야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저주에 관한 예언이 생겼다고 거꾸로 말한다.[5] 이것은 여호수아 6:26의 예언은 원인론적인 민담(saga)으로서 예언이 저주 이야기보다 뒤에 생긴 것으로 보는 견해다. 그리고 신명기 기자와 관련된 주장은 De Wette에서 Reuss와 Graf에 이르는 당시의 새로운 주장인 신명기가 7세기의 산물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6] 그렇지만 신명기는, 많은 논쟁이 되기는 하지만, 오경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요시야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래 전에 기록된 것임을 성경내적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7] 열왕기에 나타나는 국가의 우상숭배가 신명기 정신을 따라 평가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열왕기 전체를 신명기 저작이나 편집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1)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B A., M. Div) 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에서 교의학을 공부했다(Th. M.수료). 네델란드 캄펜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하고(Drs), 남아공 노스웨스트 대학교에서 법궤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Ph D.).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The Ark in Redemptive History*라는 책을 출판할 준비를 했다. 현재 저서로는 「히브리어 문법」과 역서로,「욥기강해」,「성경지리입문」 등이 있다.

2) 본고는 2007년 10월 20일 대학교회 제2회 신학포럼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3) J.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Georg Reimer, 1899, 169f.

4)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Tübingen: Max Niemeyer,1957, 66f.

5) M. Noth, *König* I, BKAT 9/1, Neukirchen-Vluyn: Neukirenerer Verlag, 1968, 356.

6) Cf. B. Holwerda, *Bijzondere Canoniek*, Kampen: Van den Berg, 1972, 18f.

7) 고고학적 증거는 신명기가 주전 이천년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히타이트의 수도 보가츠케이에서 발견된 히타이트의 종주권 언약은 어느 정도 신명기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물론 종주권 언약이 신명기에 영향을 주었는지 또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신명기를 주전 7세기 산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Hoffner는 구약의 언약형식의 구조와 가장 유사한 히타이트 조약문서의 구조는 주전 1344-1271년 정도로 본다: Harry A. Hoffner Jr., Hittites, in: A.J. Hoerth, G.L Mattingly and W.M. Yamauchi (cd.), *Peoples of the Old Testament World*,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4, 146. 신명기와 종주권 언약과 비교 연구한 클라인은 "신명기의 고대성과 진정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주는 암시를 숨겨서는 안된다"고 했다(M.G. Kline, *Treaty of the Great King*,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1963, 42).

성경 자체가 알려주는 열왕기의 자료 중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왕상 14-왕하 15:31)에 아합 왕의 남은 행적과 건축사업이 기록되었다고 언급되어있다(왕상 22:40). 열왕기상 16:34의 본문이 아합의 행적과 배교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자료도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2. 본문 번역[a]

그의 시대에 벧엘 사람 히엘[b]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c]
야웨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d] 하신 말씀대로
그의 장자 아비람을 희생하여 그 성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그의 계자 스굽[e]을 희생하여 그 성의 양쪽 문을 세웠다.

2.3. 본문의 상태

a. LXX[L]에는 34절 전체가 없다. Tov 교수는 이 절은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아합의 죄를 설명하는 33절과 그 죄의 결과인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17:1). 그래서 Tov교수에 의하면 34절은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저주가 예언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바라는 신명기 편집자가 첨부한 것 같다고 한다.[8] Conroy는 늦은 신명기 혹은 신명기 이후의 편집자가 삽입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최종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내러티브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을 기억할 만하다. 그는 이 배치가 자연스럽고 아합과 히엘이 뒤에 나올

8) Em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2, 346f.

엘리야와 엘리사 간에 서사적 유비(narrative analogy)를 이룬다고 한다.[9] 독자에게는 본문의 최종형태 혹은 현재형태가 중요하다.

b. LXX[B]은 '히엘'을 Αχειηλ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따른 양식으로, 히브리어 'achiel(하나님의 형제)과 같다. '히엘'은 BDB에서 추측하듯이 '아히엘'의 단축형일 지도 모른다.

c. 본문은 인칭 대명사가 삽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가 선포한 내용(수 6:26)이 문자 그대로 기록되었다(동사: bānà, yàsad, nātsab; 명사: *b^{e}kōr, tsā`īr, dęlęth*; 전치사: b^{e}).

d. b^{e}yad는 전치사 b^{e}(in)와 yād(hand)가 결합한 연계형이다. 이것은 수단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dabar의 피엘형과 함께 쓰여 그 뜻은 "~을 통하여 말하다"란 의미가 있다(출 9:35; 레 10:11).[10]

e. '스굽' : 커티브 *s^{e}gyyb*, 커레이 *s^{e}gūb* (대상 2:21f.).

2.4. 본문의 위치와 문맥

이 본문은 아합의 등장과 엘리야의 등장 사이에 배치되었다. 본문의 "그의 시대"[11] 란 앞에 언급된 아합의 개략적인 경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것은 아합의 잘못된 믿음이 그릇된 정책을 낳으므로 극에 달한 죄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합은 당대까지 가장 긴 통치를 한 오므리 왕조(44년)에 속한 왕

9) Charles Conroy, Hiel between Ahab and Elijah-Elisha: 1Kgs 16,34 in Its Immediate Literary Context, *Biblica* 77, 1996, 21-218.

10) Cf. W. Baumgartner (ed.),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Testament* I-IV,: Brill, 1967-1990, 371.

11) Long은 시간을 나타내는 이 표현을 메소포타미아의 공문서 양식을 본뜻을 지도 모른다고 한다. Burke O. Long, *1Kings with an Intrroduction to historical Literature*, IX,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84.

으로서 22년을 다스렸다. 그의 통치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막강한 위치에 올려놓았다.[12]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대조적인 양상을 드러내었다. 아합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였고, 배교의 역사였다.

문맥에서는 아합의 죄가 상상을 초월한 것임을 드러내려고,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한다(31). "여로보암의 길"은 이스라엘 왕의 죄의 표준이다(15:26, 34; 22:52; 왕하 15:9, 18, 24, 28). 그러나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악된 발자취를 따른 것은 그의 범죄에 있어서 가장 경미한 것이었다. 그는 이전의 어떤 왕보다 지나쳤고 여로보암의 죄악은 그의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볼 때 별것이 아니란 말이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문맥에서는 그의 죄목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그가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다(31). 외국사람과 결혼한 자체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도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또 페니키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페니키아와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삼하 5:11; 왕상 5:12). 그렇지만 아합 결혼과 관련된 조약은 다른 점이 있었다. 이세벨[13]은 바알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였다. 그녀의 아버지 이름 '엣바알'에서도 그 종교성을 읽을 수 있다. 이 *'etba`al*은 *'ittōba`al*과 같은 말로서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요세푸스는 그를 Ithobalus라고 하면서 그가 아스

12) Cf. J. Bright, *A History of Israel*, London: SCM Press LTD, 1991, 243f.

13) 원래의 모음은 *'î-zˇbûl* 로서 '군주는 없다'란 말로서 이제 왕후가 나타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î-zębęl* 로 모음을 붙여서 '똥썹'을 의미하는 말로 모음을 붙였을 것으로 본다: H.A. Brongers, *I Koningen*, POT, Nijkerk: Callenbach N.V., 1967, 162; cf. Baumgartner, op.cit. 37.

다롯의 제사장 경력을 가졌다고 했다.[14] 이 모든 것이 그 가정 전체가 바알에게 헌신된 자임을 보여준다. 만일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왕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야웨를 섬겼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것이다. 둘째, 아합이 직접 바알을 섬김으로써 배교행위를 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어서 야웨 신앙으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아합이 개종했다.[15] 그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바알을 위한 봉헌의 행위인 음행을 일삼았다는 말이다. 셋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배교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인 종교행사를 거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바알숭배를 도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땅과 삶은 사마리아에 세워진 바알의 제단에 바쳐지게 되었다. 넷째, 아세라 상을 세웠다. 이것은 그의 죄악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에서는 아세라가 여신으로서 바알과 나란히 언급되고 있다(삿 3:7; 왕상 18:19; 23:4). 사사기와 사무엘서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같은 여신으로 취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스다롯을 아세라의 복수형을 수정하기 전에는 일치시키기가 어려워 보인다.[16] 아세라는 바알 다음 가는 지위에 있으며, 태양신에 버금가는 달의 여신이다. 아세라 상은 제단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목상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왕상 14:15; 16:33; 왕하

14) Iavius Josephus, *Contra Apionem* I, 18, in: The Works of Josephus, trans. by William Whiston,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87.

15) 아합은 바알의 신봉자였지만 형식적으로는 야웨을 섬기는 자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 야웨의 약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다: 아하시야, 여호람(요람).

16) Cf. J. Day, Asherah, in: D.N. Freedma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I, New York: Doubleday, 1992, 485.

17:16; 21:3, 7 대하 33:3).[17] 본문의 배열은 아합의 이러한 종교적 죄가 그릇된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주석적 설명

3.1. 여리고의 중요성

여리고는 사해의 서북쪽 그리고 요단 강 서편에 있는 고대도시로서 구약의 여리고 위치는 현재 텔 에스-술탄 언덕에 있었다. 이 위치는 er-Riha 로 알려진 현대 오아시스에 북서쪽으로 2km정도 떨어진 곳이다. 여리고는 해하 270m로(예루살렘보다 1,067m 아래) 요단 계곡의 서쪽, 한 부분으로서 성벽을 둘러쌌던 돌을 보아서 전체 면적이 4헥타르쯤 된 것으로 본다.[18] 이 도시의 이름은 가나안의 월신(*Yarikh*)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 도시의 별칭은 '종려나무의 도시' 다(신 34:3; 삿 3:13; 대하 28:15).

성경에는 가나안 정복 시에 대하는 도시로 나타나지만 사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에 속한다. 주전 8,000년 전, 신석기

17)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확인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세라를 마치 야웨의 여신처럼 혼돈해서 섬겼다는 것이다. 시나이 반도 동북쪽의 교차로에 위치한 Kuntillet 'Ajrud에서 발견된 주전 9세기말의 비문에는 "내가 사마리아의 야웨와 그의 아세라에 의해서 너를 축복한다"고 했고, 다른 비문에는 "데만의 야웨와 그의 아세라에게" 라고 적혀있다. William W. Hallo (ed.), *The Context of Scripture* II, Leiden: Brill, 2000, 171f. Cf. M. Dijkstra, I have blessed you by Yahweh of Samaria and his Asherah, in: B. Becking, M. Dijkstra, M.C.A. Korpel and K.J.H. Vriezen, Only One Go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23.

18)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Holland는 청동기 후기의 여리고는 상대적으로 보잘 것 없는 도시였다고 한다. T.A. Holland, Jericho, in: D.N. Freedma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III, New York: Doubleday, 1992, 736.

시대 이전의 유적이 발견된 곳이다. 이곳에 고대로부터 인구가 정착한 이유는 세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19] 첫째, 물이 풍부한 샘이 있는 곳이다(왕하 2:18-22). 둘째, 이 도시는 수단 데카노 기후에 속하는 곳으로 겨울에도 따뜻하기 때문이다.[20] 셋째, 요단 나루턱과 내륙으로 진출하는 여러 통로의 입구에 위치한 이 도시의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 특별히 아합시대에 이 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의 관문이자 국경도시이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가나안 지도자들은 여리고를 요새도시로 만들고, 그들의 영토에 있는 국경선에다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서 그 곳의 지리적 장점을 이용했을 것이다.

3.2. 아합의 정책

본문은 아합이 통치할 때 벧엘의 건축가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히엘의 사적인 계획이 아니라 통치자의 프로젝트로 보아야 할 것이다.[21] 이전에 다윗(삼하 5:9), 솔로몬(왕상 9:15-19), 르호보암(대하 11:5-10), 여로보암(왕상 12:25)과 같은 왕들이 성읍을 요새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여리고도 아합의 의도에 따라서 건축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합은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고 새롭게 요새화한 성에 거주했다(왕상 16:24). 강력한 요새로 둘러싸인 궁전에서 통치하

19) K.L. Noll, *Canaa and Israel in Antiquity*, Sheffield: Sheffield Academy Press, 2001, 88.

20) John D. Currid, Climate and Plants, in: O. Palmer Robertson, *Understanding the Land of the Bible*,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1996, 70f.

21) Cf. M. Noth, *König* I,, op.cit., 355.

는 왕은 또한 강력한 국경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합에게는 재건되지 않은 여리고가 영구적인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히엘의 프로젝트는 폐허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 없애고 여리고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삿 3:13; cf.왕하 2:18,19). 이것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폐허된 성벽을 다시 세워 크고 강한 성벽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아합은 열려있는 여리고의 상황을 참을 수 없어 여리고를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국경도시요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여리고는 이스라엘민족이 도래하기 이전의 가나안 시대처럼 다시 요새화되어야 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히엘의 재건활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합은 열려있는 여리고에 대해 공포심을 가졌으며 두텁고 높은 성벽이 있어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불안심리는 모압왕 메사(Mesha)의 군사작전 때문에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모압왕 메사의 석비에 의하면 메사가 아합시대에 여리고 동편 땅 메데바(Medeba)의 전영토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아합에게 위협이 되었음에 틀림없다.[22] 또한 과거에 모압왕 에글론이 암몬족속 및 아말렉 족속과 동맹을 맺어 여리고(종려나무 성읍)를 점령한 일이 있었다(삿 3:13). 에글론은 여리고에 그의 궁전을 지어서 머물렀다.[23] 이 역사를 알고있는 아합은 여리고를 반드시 요새화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22) "그러나 오므리는 메하다바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그의 통치동안과 그의 아들의 통치기간 반, 사십 년간 머물렀다. 그러나 그모스가 그 땅을 내 시대에 돌려주었다. 그래서 내가 바알 마온을 건설하고 거기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A.F. Rainey & R.S. Notley, *The Sacred Bridge*, Jerusalem: Carta, 2006, 211.

23) Cf. D.I. Block, *Judges, Ruth*, NAC,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99, 162: 블록은 여기서 여리고에 있던 에글론의 궁전 전개도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재건은 메사왕의 군사작전에 비추어 생각한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는 사업이었다. 모압족속이 여리고의 바로 동편 땅과 요단을 가로지르는 땅에서 자유로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대담하게 강을 건너서 그 열린 도시를 경유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3.3. 여리고에 임한 저주

한글 성경은 마치 히엘이 건축하는 도중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번역되었다.[24] 그러나 이 저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라기 보다는 자녀를 희생시켜서 건축한 것(foundation sacrifice)으로 보인다.[25] 이렇게 인간을 제사로 드리는 이 행위는 성경에서는 주로 몰렉에게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함으로써 바치는 예가 있지만 그 목적은 명확하지 않다.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는 페니키아에서 가장 빈번하게 행해졌다고 한다.[26] 이런 의식은 특별한 위기 상황이나 건축의 의식으로 행해

24) Fritz는 한글번역과 같이 히엘의 아들들이 건축하는 동안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서 건축을 위해서 아이를 바치는 제사로 볼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전치사 be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Volkmar Fritz, *Das erste Buch der Könige*,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96, 161.

25) 현대 주석가들은 'foundation sacrifice'를 카르타고에서 발견된 항아리에 든 채 제물로 바쳐진 아이들의 유물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DeVries, 1Kings, WBC, 205; Paul R. House, *1, 2 Kings*, NAC 8,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95, 204. 그러나 그 대상과 실제적인 이유가 다르다. 카르타고의 경우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출산을 통제하고 인구수를 조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산아제한을 한 것이다. 그러나 히엘의 장자와 계자를 유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또 이들이 둘 다 유아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이 장자와 계자라는 것은 연령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적어도 히엘은 국책을 말을 정도로 경력이 있는 건축가일 텐데 장자를 유아로 둘 정도로 젊지는 않을 것이다.

26) Martin J. Selman, Sacrifice in the Ancient Near East, in: Roger T. Beckwith (ed.), *Sacrifice in the Bible*,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5, 99f.

졌다(왕하 3:27). 히엘이 건축할 때 어린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나안 땅에는 왕국시대 이전부터 이런 관행이 있어왔고 또 아합시대에 페니키아의 종교적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27] 이 타락한 종교행위가 나왔을 것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여러 성읍에서 건축을 위한 희생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28] 그들은 땅의 신을 달래고 악귀를 쫓아내며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희생시키고,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제물로 바쳤을 것이다. 그들이 거행한 '건축을 위한 제사' 인 저주스런 제의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발한 저주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성취됨으로써 이 사건은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증거 해준다.

3.4. 여리고성 재건에 대한 금지 이유

이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재건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다. 오래 전부터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같은 역대 왕들은 많은 성을 요새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으리라고 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27) Roland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trans., John McHugh,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61, 442.

28) 게셀에서는 나이든 여인의 해골이 집모퉁이 아래 묻힌 것이 발견되고, 다아낙에서는 열 살쯤 된 아이의 해골이 망대기단 아래에서 발견되고, 므깃도에서는 열다섯 살 가량 되는 소녀의 해골이 큰 탑의 기단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건축을 위한 희생' 은 가나안에 일반화된 이교적 관행이었다. D.D. Luckenbill, The Early Religion of Palestine, *The Biblical World XXXV* 6, 1910, 369.

그렇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리고성 정복 전에 일어난 사건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마른 땅과 같이 건넌 후 그 일을 기념하는 돌을 세웠던 것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행적을 모든 사람에게 또 대대로 알리는 것이다(수 4:6-7). 이 연장선에서 여리고성 재건 금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개방된 상태에 있기를 원하신 이유는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외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9] 이 도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행적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주께서 친히 그 성벽을 허물어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함락시키는데 한 일을 아무 것도 없다.[30] 오직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들이 성 주위를 칠 일간 매일 도는 것이 무슨 마술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술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인다.[31]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기이하신 간섭에 있었다. 한 때 강한 성벽이 있던 그것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

29) M.B. Van' t Veer, *Mijn God is Jahwe*, Franeker: T. Wever N.V., 1939, 16ff.

30) 여호수아 24:11은 6장의 보도와는 달리 여리고의 귀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Soggin은 좀 더 명확한 칠십인역 2:18절의 표현과 연결시켜서 여리고 정복은 전쟁을 통한 정복이라고 주장한다: J.A. Soggin, The Conquest of Jericho through Battle, *Eretz-Israel* 16, 1982, 215-217. 그렇지만 여호수아 6장에서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에 의한 것이고 그 뒤에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31) Spero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전략임을 강조한다. 그것은 적을 방심하게 만든 상태에서 기습을 하는 행위로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절한 작전이라는 것이다: Shubert Spero, Why the Walls of Jericho Came Tumbling Down, *Jewish Bible Quarterly* 34, 2006, 86-91.

님의 놀라운 권능을 증거하고 있었다.[32] 통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분의 무한한 능력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여리고의 돌무더기의 메시지는 저주와 축복 그리고 심판과 은혜에 대한 메시지다. 또한 율법의 형벌과 복음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해주는 메시지이다. 이것은 언약의 양면성을 보여준다(신 28). 하나님께서 이 성벽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실 때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이 폐허된 무더기는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지만, 죄짓는 자들의 날은 참으로 계수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 죄인들은 오직 심판의 날을 위해 보존되고 있었다. 여리고의 무너진 성벽은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했다. 그 성벽이 선포한 메시지는 율법의 형벌과 죄에 대한 저주였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폐허를 복음에 대한 선포로서 사용하셨다. 여리고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돌무더기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성은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얻어진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 폐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그 도시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직접 주신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여리고의 벽은 군사적인 힘이나 무력 또는 전략적인 모략이 아

32) 전승사적 비평에 속하는 학자들은 여리고 성 함락을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고 전통의 산물로 본다. Schmid는 이 보도를 "역사적 보도가 아니라 신학적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Coats도 이 본문의 역사성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 여리고 성벽이 실제로 무너졌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Long은 만일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성경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입장을 취한다. H.H. Schmid, *Die Steine und Wort: Fug und Unfug biblische Archologie,* Zürich: TVZ, 1975, 161; George W. Coats, The Ark of the Covenant in Joshua: A Probe into the History of a Tradition, Hebrew Annual Review 9, 1985, 148; V. Philips Long, The Art of Biblical Histo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116-118.

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봉괴되었다(히11:30). 약속의 땅에 새겨진 복음의 메시지가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폐허된 도시를 재건하지 말라고 하셨다.

3.5. 아합의 의도에 나타난 영적 교훈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 저주는 사사들과 후의 왕들에게 구속력이 있었다. 그들은 이 폐허가 외치는 야웨의 음성이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퍼지도록 놓아두었다. 비록 다윗, 솔로몬이 왕국의 강화를 위하여 여러 건축사업을 했지만, 여리고의 폐허가 외치는 소리는 선포되도록 놓아두었다. 그들을 계승한 왕들이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을 어길 때가 종종 있긴 하였으나 여리고의 무너진 벽에 감히 방해를 놓을 수 없었다.

본문의 문맥은 아합이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의 분과 노를 일으켰다고 전한다. 아합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폐허에서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열려있는 국경도시를 위험스러운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전적으로 군사력을 의지하며, 강병책과 담으로 둘러싸인 성들만을 신뢰하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성벽이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만 의지하는 신정국가의 왕에게는 여리고의 폐허가 위험이 아니라 위로와 안전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왕에게는 개방된 여리고를 앞에 두는 것보다 더 안전한 국경 수비책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폐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가나안으로 가는 입구에 기록된 복음을 지워버렸다. 이 성읍과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받은 것이지 인간의 능력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기록에 저항하였다. 이제 그 폐허가 외치고 있는 말씀도 잠잠하게 되었다! 아합은 자신의 기록으로 그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스라엘은 오직 아합의 능력과 벧엘의 건축자 히엘의 건축기술을 통하여 방어되고, 보존될 것이다' (8).[33] 아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터 위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하는 은혜의 복음전파를 가로 막아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룩한 것으로 왜곡시켰다. 아합은 적그리스도의 편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이 권리를 차지하려고 시도했다. 돌무더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장식하려했다.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 재건에 나타난 아합의 죄다.

4. 결어

아합의 종교적 죄와 엘리야의 출현 사이에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열왕기상 16장 34절은 두 기사를 연결시키는 교량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이 본문을 역사성이 없는 후대 삽입으로 볼 필요는 없다. 본문의 내용은 아합의 배교의 결과로 나타난 정치적 문제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 약속의 성취는 히엘의 자녀를 희생

33) M.B. Van' t Veer, op.cit., 19f.

시킴으로써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예언한 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둘째, 어떤 군사력 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합이 여리고를 요새화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심판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리고에 내린 저주는 언약적 양면성이 드러난다. ▤

고신신학 10

Kosin Theological Journal

발행일 _ 2008. 09.16

발행인 _ 김성수

편집인 _ 전광식

발행처 _ 고신신학회

등록 _ 제 4-22호

주소 _ 606-080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49-1
고신대학교 고신신학회

전화 _ 051) 990-2348, 2276, 2273

값 7,000원

판권 _ 고신신학회 소유